

인공지능의 도덕성

휴먼지능정보공학과 201910803 박채희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AI 기술에 관심이 있는 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도덕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다'라는 AI 챗봇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내용으로 '이루다'를 학습시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20세 여대생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장애인과 성소수자 혐오, 또한 개인정보 노출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는 AI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차별논란이 생기는 것이고, 인공지능의 도덕성에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찾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최근 각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AI 면접과 관련하여 그 AI가 혐오와 차별적 데이터로 학습된 상황이라면, AI가 사회적 편향을 그대로 흡수해 사회 전반에 차별과 편견을 더 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데이터 정제와 필터링 등에 신중을 가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쌓아온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는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덕성과 관련한 법률이나 정책제도 등도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고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